

東武公의 知行에 관한 考察

임진희* · 이익주*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A Study on Dong-mu's 'Knowing and Acting'

Lim Jinny -hee*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Objects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Dong-mu's thought on 'Knowing-Acting(知行)', through summarizing sentences related to 'Knowing-Acting(知行)' proposed in his writings.

2. Methods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bibliologically with Dong-mu's chief medical writings such as 『Gyukchigo(格致藥)』, 『Don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Dong-mu's posthumos work(東武遺藁)』.

3. Results and Conclusions

1. 'Knowing(知)'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Mind(心)' and 'Acting(行)' is related to practice of 'Body(身)' in 『Gyukchigo(格致藥)』. 'Knowing-Acting(知行)' in 『Gyukchigo(格致藥)』 is regard as a important factor to reach the state of 'Golden mean(中庸)' by 'Perception of Man(知人)'

2. 'Knowing-Acting(知行)' in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is thought to recognize and practice marals such as 'Humanity · Justice · Propriety · Wisdom(仁義禮智)' and 'Loyalty · Filialpiety · Friendahip · Fraternity(忠孝友悌)'. It was proposed that people are classified into Sasang Constition by 'Knowing-Acting(知行)' in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3. 'Knowing-Acting(知行)' in 『Don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 is different from 'Knowing-Acting(知行)' in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Knowing(知)' is conception of marals such as 'Humanity · Justice · Propriety · Wisdom(仁義禮智)' and 'Loyalty · Filialpiety · Friendship · Fraternity(忠孝友悌)'. 'Acting(行)' is conception of productivity such as 'Scholar · Farm · Engineer · Merchannt(士農工商)' and 'Field · Residence · District · Nation (田宅邦國)'.
4. 'Knowing-Acting(知行)' in 『Dong-mu's posthumos work(東武遺藁)』 wa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one. The large one is private and the small one is public. It is important to become sincere and respectful for achieve 'Ideal medium of Knowing-Acting'.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교신저자 : 임진희.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958-9232 E-mail) 740424jh@hanmail.net

I. 緒 論

중국 고대의 철학자들은 天道와 人道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중시하여, ‘知天’·‘知人’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知天과 知人은 나아가 ‘知’자체의 문제에 까지 이르게 된다. ‘知’의 기원은 무엇인가, ‘知’는 가능한가, ‘知’를 얻는 방법과 과정은 무엇인가, ‘知’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개는 다시 ‘行’의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知行의 문제는 중국 고대 철학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 고대 철학에서 ‘知’라는 말은 그 의미가 비교적 복잡한데, ‘知覺’의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知覺이란 이 사물이 이 사물임을 아는 것으로 인식능력과 인식작용이다. 지식이란 사물의 조리나 법칙에 대한 인식이다. 도덕 의식은 是非와 善惡에 대한 인식이다. 통상적으로 ‘智’와 ‘知’의 의미와 용법은 서로 같지만, 굳이 구별을 하면 ‘知’는 인식 능력을 가리키고, ‘智’는 지식을 가리킨다. ‘行’은 과정이라는 의미 외에 대부분의 인간 행위나 활동을 가리키며, 나아가서는 도덕행위를 가리킨다. 학자에 따라서는 생활활동을 뜻하기도 한다. ‘行’은 또한 행위·습관·실행·실천으로 불리기도 한다¹⁾.

일찍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일부 저명한 철학자들이 인식론 문제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知의 기원문제·知의 방법과 과정·知行의 難易·인식 과정 속에서의 知行의 지위 등에 관하여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시키고 각양각색의 知行觀을 천명함으로써, 후에 나올 知行學說의 원조를 이루었다. 秦에서 唐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자들은 知의 기원 문제에 대한 심오한 탐구와 토론과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知行學說은 첨예하게 대

립하게 되었고 西晉 이후에 나타난 불교 각파의 신비주의적인 知行學說은 空前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宋에서 淸에 이르기까지는 통치 계급은 봉건 도덕의 교육과 실천을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철학계의 이론적 중심 문제는 하나로 귀결되어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체계적이고 완비된 知行觀을 천명하였으며, 이러한 사태로 인해 여러 知行學說이 대두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²⁾.

중국 고대의 知行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知行의 先後와 그 先後의 有無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견해가 있는데, 知先後·行先後·知行合一의 세가지이다. 이 가운데 行先後와 知行合一을 견지하는 철학자들이 말한 ‘知’는 대부분 경험 지식을 가리킨다. 知行合一을 주장한 철학자(왕수인)가 말한 知는 선験적인 良知를 중점적으로 가리키며, ‘行’이라고 말하는 것도 도덕 실천을 주로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 고대 知行觀에 담긴 하나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외에 知行의 輕重·難易도 주로 논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요인은 知와 行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된다³⁾.

중국 고대의 知行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윤리화의 경향이다. 중국 고대의 知行觀과 서양 철학사의 知行觀은 유사한 내용과 공통의 법칙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의 차이로 다른 특징도 지니게 되는데, 서양의 知行學說은 비교적 수학과 경험과학의 연구 방법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지만 중국 고대의 知行學說은 비교적 윤리학이나 도덕 수행의 방법과 결합하여, (비경험적인)논리적 경향을 뚜렷이 드러낸다⁴⁾.

동양학에서는 이상과 같은 知行觀의 양상이

1) 方立天: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p.21
 2) 方立天: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p.197
 3) 方立天: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p.198
 4) 方立天: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p.204

있었는데, 東武公의 각종 저서를 중심으로 하여 각 시기 마다의 知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東武公 知行觀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발전하였는지를 알아보겠다.

II. 本 論

1. 『格致藁』

『格致藁』는 東武公에 의해 1880년부터 1893년 사이에 저술된 책으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주변세계에 관하여 사색하고 그 治平을 위해 모든 관심을 傾注하며 한 시대를 살다 간 東武公의 철학적 省察錄이며⁵⁾, 크게 【儒略】·【反省箴】·【獨行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格致藁·儒略』에서 제시한 東武公이 세상을 인식하는 주요 방법은 ‘事心身物’이다. 따라서 「事物」은 『格致藁』의 첫 장인데, 여기서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네가지 요소에서 ‘事物’은 ‘非我’의 요소이며, ‘心身’은 ‘我’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格致藁』에서 나타난 ‘事心身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格致藁』에 나타난 事心身物

太極	兩儀	三才	四象	外延	數	個別四端	八條目
中	陽	天	事	大	萬	貌言視聽	治平
		人	心	小	一	學問思辨	格致
	陰	身	身	近	一	屈放收伸	誠正
		地	物	遠	萬	志瞻慮意	修齊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心과 身이 人을 이루는 요소이며, 身은 行을 담당하고, 心은 知(覺)를 담당한다⁶⁾는 것이다. 따라서 知行論은 知人論에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성하는 心과 身에서 이루어지는 知와 行을 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즉 東武公의 知行論은 知人論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知人’의 필요성에 관하여서는 동무의 초기 저작인 『格致藁·獨行篇』에 잘 나타나는데, 『格致藁·獨行篇』을 보면 ‘知人’을 통하여 ‘不動心’할 수 있고 이로써 ‘中庸’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⁷⁾ 여기에서 東武公 철학의 가장 큰 목표는 ‘中庸’이며, ‘知人’과 ‘正己’는 ‘中庸’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야 할 가장 첫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格致藁』에서 제시한 知行論은, 知人은 東武公의 이상향인 中庸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知行은 知인의 기본 요소라는 인식이다. 즉 人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心과 身이며 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知이며, 身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行이라고 인식하고, 知人을 위해서는 心과 身의 기능인 知行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心에서 知를 담당하여 學問思辨이 이루어지고, 身에서 行을 담당하여 屈放收伸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처럼 知行의 차별성보다는 知行의 공통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함흥의 崔謙鏞이 소장하던 것으로 金九翬이 手抄하여 1984년 筆寫本이 影印되었고,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學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시기는 『東武

5) 池圭鎔: 東武 格致藁譯解. 永林社. 서울. 2001, p.32

6) 『格致藁·儒略』
“...物止也, ...身行也, ...心覺也, ...事決也.”

7) 『格致藁·獨行篇』
“知人誠僞則不惑, 不惑則正心, 正心則不動心, 不動心則遜世中庸而無悶”

遺稿』藥性歌나 39세 亡陰證 치험례 이후 저술로 『格致藁·儒略』·『格致藁·反省箴』 저술 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된다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第一統』에 知行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⁹⁾, 이는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비교는 『東醫壽世保元』에서 하겠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心身을 知行과 연결시키는 외에, 事心身物과의 관계도 밝히고 있다. 우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心身과 知行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格致藁』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事心身物과 知行(1)

太極	兩儀	三才	四象	個別四端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中	陽	天	事	貌言視聽	聽視言貌	耳目舌脈	耳目鼻口	敏而捷	覆萬物
		人	心	學問思辨	學問思辨	肺脾肝腎	肺脾肝腎	忍而容	知萬物
	陰	身	屈放收伸	伸收放屈	首肱股股	首肱股股	堅而勤	行萬物	
		地	物	志慮慮意	意魂魄志	神氣血精	神氣血精	剛而暢	載萬物

이외에 性用·形用이라는 개념이 나와 性用이 知이며, 形用이 行이라는 개념도 함께 나오는데, 여기서 性과 形도 心·身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되어, 여기까지도 心身과 知行간의 관계에 관하여만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어서 知行과 事心身物의 관계도 설명된

다. 知에는 舒卷이 있으며, 行에는 進退가 있는데, 知가 舒하면 決(事)이고 卷하면 覺(心)이며, 行이 進하면 動(身)이고 退하면 止(物)한다¹⁰⁾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事心身物과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事心身物과 知行(2)

知	舒	決	貌言視聽	事	肅艾哲謀
	卷	覺	學問思辨	心	明慎審博
行	進	動	屈放收伸	身	勤能慧誠
	退	止	魄魂心意	物	利勇謀知

그런데 이상과 같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에서 心을 利勇謀知(物)·明慎審博(心)과 연결하고, 身을 勤能慧誠(身)·肅艾哲謀(事)와 연결시키는 상호 모순된 내용이 언급된다¹¹⁾.

그리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知行의 차별성에 관한 언급이 되기 시작한다. 우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知와 行을 肺脾肝腎으로 차별화 하여 언급한다¹²⁾. 그리고 知와 行의 특징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知行

	대상	특징						
知	事務·交遇·黨與·居處	衆同	天	天下所成之局	理	明	德	性
行	籌策·謀猷·材幹·便宜	曲己	人	一人所作之器	欲	誠	道	命

8) 이수경: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Vol 11. No.1, 1999. p.77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德之所由生也.

註: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皆出於知行.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道之所有生也.

註: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皆出於衣食.”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 “利勇謀知物隨身也, 君子于止萬物化也. 勤能慧誠身師物也, 君子于動萬物動也. 明慎審博物觸心也, 君子于覺萬物靜也. 肅艾哲謀心明物也, 君子于決萬物變也. 利勇謀知太公之兵法也. …心處在天下之所爲也, 明慎審博夫子之教詔也, …心交遇衆人之所爲也. 勤能慧誠舉三隅而一隅反也. …身自幼至老之所爲也, 肅艾哲謀孔明之智略也. …身務圖國家之所爲也.”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이상의 내용처럼 知行의 공통요소에 관한 설명 외에, 知行의 차별성에 관한 언급도 제시되어 지고 있다. 太陽과 少陰은 知가 主가 되고, 太陰과 少陽은 行이 主를 이룬다고 보고, 太陽은 知가 過하여 ‘知’가 되고 少陰은 知가 不及하여 ‘愚’가 되며, 太陰은 行이 過하여 ‘賢’이 되고 少陽은 行이 不及하여 ‘不肖’가 되며 이것으로 인해 太陽은 詐를 쉽게 하고, 少陰은 瞞을 쉽게 하고, 太陰은 侈를 쉽게 하고, 少陽은 懶를 쉽게 한다고 하였으며¹³⁾. 네명의 賢人의 예로 太陽之象·少陰之象·太陰之象·少陽之象을 설명하였다¹⁴⁾. 이는 知行에 의한 知人論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단, 여기서의 詐瞞侈懶의 事心身物과의 배속은 『格致藁』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太少陰陽과 知行

太陽	知	過	知	詐	身	立於道	夫子之周遍
少陰		不及	愚	瞞	心	明於德	曾子之治平
太陰	行	過	賢	侈	事	言於善	孟子之雄辯
少陽		不及	不肖	懶	物	行而誠	子思之中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知行論은 『東醫壽世保元』과 비교하면, 知行論의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부터 知行論의 공통성을 뿐만 아니라 차별성의 개념이 제시되고, 知行之象을 통한 知人論의 개념도 제시되고

있다.

3. 『東醫壽世保元』

『東醫壽世保元』은 1893년에서 1894년까지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을 저술한 이후로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1900년까지 『醫源論』에서 『太陰人論』까지의 내용을 改草하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을 쓰게 된다. 知行論에 관한 내용은 주로 『性命論』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甲午년에 쓰여진 『東醫壽世保元』에서 완성이 되고 이후에 改草되지 않았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의 知行論은 1894년 무렵의 東武公의 知行論임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性命論』 知行의 개념을 보면 頤臆臍腹에서 行其知하고, 頭肩腰臀에서 行其行한다고 하여¹⁵⁾ 知行에서 知는 頤臆臍腹에서 담당하고, 行은 頭肩腰臀에서 담당한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知行의 過·不及에 따라 知·愚·賢·不肖를 구별하였는데¹⁶⁾, 耳目鼻口에 知를, 頤臆臍腹에 愚를 배속하고 肺脾肝腎에 賢을, 頭肩腰臀에 不肖를 배속하였는데¹⁷⁾, 여기서 인체의 전면에 해당하는 耳目鼻口·頤臆臍腹이 知를, 후면에 해당하는 肺脾肝腎·頭肩腰臀이 行을 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이 더욱 정리되어 知는 性과, 行은 命과 연결시켰고¹⁸⁾, 이를 확장한 개념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太陽之知，知而過也，象人之過於知者易爲詐也。少陰之知，愚而不及也，象人之愚而不及者易爲瞞也。太陰之行，賢而過也，象人之賢而過者易爲放也。少陽之行，不肖而不及也，象人之不肖而不及者易爲懶也。”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夫子之周遍立於道也，立於道者立於身也，太陽之象也。曾子之治平明於德也，明於德者明於心也，少陰之象也。孟子之雄辯言於善也，善也者善於事也，太陰之象也。子思之中庸行而誠也，誠也者誠於物也，少陽之象也。”

15) 『東醫壽世保元·性命論』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太陽之知，知而過也，象人之過於知者易爲詐也。少陰之知，愚而不及也，象人之愚而不及者易爲瞞也。太陰之行，賢而過也，象人之賢而過者易爲放也。少陽之行，不肖而不及也，象人之不肖而不及者易爲懶也。”

17) 『東醫壽世保元·性命論』
：“耳目鼻口 人皆知也 頤臆臍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臀 人皆不肖也”

표 8 『東醫壽世保元』의 知行

知	性	慧覺	德	仁義禮智	忠孝友悌	善	教	欲其兼人
行	命	資業	道	士農工商	田宅邦國	用	功	欲其兼己

이상의 내용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知行과 차이를 보인다. 1894년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知와 行을 분류하여 知에 仁義禮智 忠孝友悌를 배속하고, 行에 士農工商 田宅邦國을 배속하였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知行에 仁義禮智 忠孝友悌를 배속하고, 衣食에 士農工商 田宅邦國을 배속하였다. 우선 知는 인식의 개념이며 行은 행위·습관·실행·실천의 개념이다. 知인 인식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에 관한 인식, 是非에 관한 인식, 도덕 인식이 이며, 行의 행위 대상은 일상 행위와 도덕 행위이다. 그럼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知行이 知와 行의 합성어가 아니라 『東醫壽世保元』에서와 같이 慧覺과 資業의 다른 명칭으로 단지 知行과 衣食을 사용한 것으로 지행을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知行에서 知는 단순한 인식의 개념이고, 行은 단순한 행위의 개념으로 보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도덕적인 것과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분리하여 知行은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이 도덕적인 것에만 한정된다고 보고, 이런 도덕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知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行으로 본다는 知行

論이고, 『東醫壽世保元』의 知行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知行과 衣食의 분류와는 달리, 知는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윤리적인 도덕 의식의 개념이 主를 이루며, 行은 士農工商 田宅邦國과 같은 생산활동의 개념을 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4. 『東武遺稿』

『東武遺稿』는 東武公이 생전에 지은 단일한 저술인 『東醫壽世保元』·『格致藁』이외의 글로써, 다종의 장르를 지닌 일종의 文集이라고 할 수 있다. ‘遺稿’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東武遺稿』는 東武公 생전에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東武公이 세상을 떠난 뒤에 후손 또는 문인에 의해 수집·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格致藁』가 동무 철학 사상의 經學的 基調를 선보인 것이고, 후기에 저술된 『東醫壽世保元』이 동무의 사상을 가장 잘 집약하여 동무의 철학과 의학이 어우러진 반면에 『東武遺稿』는 이런 저런 장르를 통해 표출된 동무 사상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다. 저술 연대는 20세부터 만년에 걸쳐 있다¹⁹⁾. 그러나 知行에 관하여 주로 언급된 「知行論」은 주로 1897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동무 사상의 후기 시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이다.

『東武遺稿』에서 知行에 관한 내용은 주로 『濟衆新編·知行論』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도 知는 心에서, 行은 身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心은 放蕩을 身은 偷逸을 가장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⁰⁾. 그리고 知도 大知와 小知로 나누고, 行도 大行과 小行으로 나누었으며, 大知는 治國·平天下이고, 小知는 農工商虞이며, 大行은 正衣冠·端起居이고, 小行은

18) 『東醫壽世保元·性命論』
: “或曰 舉知而論性 可也而 舉行論命 何義耶 曰 命者 命數也 善行則 命數自美也 惡行則 命數自惡也 不必卜筮而可知也 詩云 永言配命 自求多福 卽 此義也.”

19) 이창일: 東武遺稿, 서울, 청계, 1999, p.17

20) 『濟衆新編·知行論』
: “何以知之 心以知之也 何以行之 身以行之 心不可以放蕩 放蕩則損知 身不可以偷逸 偷逸則損行”

負薪力作이라 하였다²¹⁾. 그러나 여기서 大行·大知와 小行·小知가 善惡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知와 行이 中道를 얻는다.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善惡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²⁾.

이를 통해서 정리하면, 『東武遺稿』에서의 知行論은 格致藁의 생각과 유사하게 知는 心에서, 行은 身에서 담당하고 知行에서 中道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 知에서는 放蕩하지 않고 從容한 것을 통하여 誠을 달성하면 中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行에서는 偷逸하지 않고 敏強함을 통하여 敬을 달성하면 中道를 달성할 수 있음²³⁾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東武遺稿』에서도 인간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知行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考 察

기존 東洋學에서의 知行은 知와 行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는데, 東武公의 知行論은 ‘知天’·‘知人’에서 知行의 인식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格致藁』에서의 知行을 보면, 『格致藁』의 주요 인식방식인 事心身物에서 心을 知와 身을 行과 연결시켜서 知는 인식의 개념으로, 行은 실천이나 실행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知行은 단순한 知行이 아니라 知人을 통하여 그의 이상향인 中庸에 이르기 위해 知인에 기본적인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知行論을 보면, 우선 『格致藁』의 개념처럼 知는 인식이며 行은 행위와 실천이라는 개념은 유지되며 知行

은 衣食과는 달리 仁義禮智 忠孝友悌의 도덕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개념이 형성되고, 知人論이 더욱 발전하여 知行之象을 통하여 太少陰陽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知行的 過·不及에 따라 知·愚·賢·不肖로 구별된다고 하고 太陽人·少陰人·太陰人·少陽人으로 배속하고 그들의 詐色侈懶를 드러낼 때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이는 東武公 특유의 知行之象을 통한 知人論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는 달리 知는 性·德·慧覺과 연결되면서 知는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윤리적인 도덕의식으로 주로 개념화 되었으며, 行은 命·道·資業과 연결되면서 士農工商 田宅邦國과 같이 생산활동으로 개념화 되었다. 그리고 『東武遺稿』에서는 知와 行을 모두 大小로 구별하는데, 여기서의 大小 구별의 기준은 개인적인 知行은 小에, 대외적인 知行은 大로 인식하고 知行의 善惡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것은 大小가 아니라, ‘中道’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知行의 中道를 얻기 위해서는 從容·敏強을 통해 誠·敬을 이루면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東武公의 知行에 관한 인식변화를 그의 저술 순서로 알아보았는데, 그의 초기 저서를 보면 知行을 知와 行으로 분리하고 心身の 兩面과 연결하여 인식하여, 心에서 이루어지는 知覺을 ‘知’로, 身에서 이루어지는 行爲를 ‘行’으로 인식하였으며 체질별 知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다 후기 저서로 넘어가면서 知·行을 도덕인식과

21) 『濟衆新編·知行論』

: “知有大小 治國平天下 大知也 農工商處 小知也. 行有大小 正衣冠端起居 大行也 負薪力作 小行也”

22) 『濟衆新編·知行論』

: “得中道則大行小行 皆爲善行也. 不得中道則大行小行 俱爲惡行也. 何以然耶 家貧者 負薪力作則果是中道而善行也. 若正衣冠端起居 整頓修飾則不得中道而 反爲惡行也. 身貴者 正衣冠端起居則果是中道而善行也. 若負薪力作 奔走道路則不得中道而反爲惡行也.”

23) 『東武遺稿·知行論』

: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從容而已 此之謂誠也. 思辨之道 無他 警其逸身敏強而已 此之謂敬也”

생산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아닌 '誠·敬'을 통하여 '得中道'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IV. 結 論

1. 『格致藁』의 知行은 事心身物에서 心을 知와 身을 行과 연결시켜 知는 인식의 개념으로, 行은 실천이나 실행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知行은 단순한 知행이 아니라 知人을 통하여 그의 이상향인 中庸에 이르기 위해 知人에 기본적인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知行은 知는 인식이며 行은 행위와 실천이라는 개념 하에 知行은 衣食과는 달리 仁義禮智 忠孝友悌의 도덕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개념이 형성되고, 知人論이 더욱 발전하여 知行之象을 통하여 太少陰陽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3.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는 달리 知는 性·德·慧覺과 연결되면서 知는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윤리적인 도덕의식으로 주로 개념화되었으며, 行은 命·道·資業과 연결되면서 士農工

商 田宅邦國과 같이 생산활동으로 주로 개념화되었다.

4. 『東武遺稿』의 知行은 知와 行을 모두 大小로 구별하고, 개인적인 知行은 小로, 대외적인 知行은 大로 인식하고 知行의 善惡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것은 大小가 아니라, '中道'임을 밝혔다. 그리고 知行의 中道를 얻음에 從容·敏強을 통한 誠·敬을 강조하였다.

參 考 文 獻

1.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2. 이창일: 東武遺稿, 서울, 청계, 1999
3. 지규용: 東武 格致藁譯解, 서울, 영림사, 2001
4. 사상체질의학회: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復元本, 서울, 사상체질의학회, 2001
5. 사상체질의학회: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사상체질의학회, 2001
6. 方立天: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서울, 예원서원, 1998
7. 이수경: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Vol 11. No.1, 1999. p.77